



지역현안 법안 줄줄이 내년 국회로

문화전당·수영대회·5·18왜곡 금지 등 단 한건도 처리 못하고 해 넘겨

2013년 국회가 내년 1월3일(12월 임시국회) 끝나지만 광주·전남지역 관심 법안들은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이는 관련 법안들이 시기적으로 늦게 발의됐을 뿐 아니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신 개입 등 연중 쏟아진 각종 정치적 쟁점에 휩쓸렸기 때문이다. 우선 광주 국제수영경기대회 지원 내용을 담은 국제경기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2월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갔으나 교육 관련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는 물론 아직 처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향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부의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시민의 반대 여론에 밀려 아직 국회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이와 관련, 교문위 소속인 민주당 박해자 의원이 광주지역 여론을 수렴한 개정안을 내용을 계획이어서 내년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도 모두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홀로코스트법)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5·18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를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체의 국권침탈,

친일반민족행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5·18 민주 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 법안소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각각 계류 중이다. 지난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과 관련, 지난 5월21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내년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내년 5·18 기념식 때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형사보상 청구기간이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대해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행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여야 정쟁이 계속되면 광주·전남지역 관심 법안 내내 상반기에도 처리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며 "내년에는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철도파업 4주째...오늘부터 열차 운행률 50%대로 뚝

연말연시 교통대란 가시화
KTX 자회사 면허발급 강행
민노총 2·3차 총파업 예고

철도파업 4주째를 맞는 30일부터 열차 운행률이 더 떨어져 연말연시 이동수요와 맞물려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주말 열차는 평시 대비 82.1%로 운행, 주중(76.1%)에 비해 다소 늘었다. KTX는 74.1%, 새마을호 57.7%, 무궁화호 62.2%, 수도권 전동열차 95%, 화물열차는 35.9%로 운행됐다.

철도파업 4주째가 되는 30일부터는 연말연시 대수송기간임에도 필수유지 수준으로만 열차 운행될 예정이어서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필수유지 운행률은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화물열차 0%다. 그러나 화물열차는 20%대를 유지, 대체 운송수단이 없는 시멘트 수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기간 열차운행률은 평시 대비 74.3%에 불과하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수서발 KTX 법안 면허 발급을 맹비난하면서 강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지난 28일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맹비난하는 대규모 총

파업 결의의 대화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다. 이들은 정부의 수서발 KTX 법안 면허를 발급과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맹비난하며 중단없는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나 물대포가 발사되는 등 심각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민노총은 내년 1월 9일에는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1월 16일에는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열기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까지 강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소용돌이 별빛 사이로 저무는 계사년 계사년이 저문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 한줄기 별빛이 비취주길 기원하며 '청마(靑馬)의 해' 갑오년을 기다린다. 29일 밤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498m) 정상에 풍력발전기 날개와 별들의 궤적을 담았다. 사진은 NIKON D600 카메라를 이용해 30초씩 노출을 준 60여장의 사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이용재의 세상만사 새해부터 독자 찾아갑니다
광주일보 이용재 논설고문이 집필하는 '이용재의 세상만사'가 새해부터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고문은 이 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활약해 온 종견 언론인으로서 부드러운 필치, 번득이는 재치, 쉽게 읽히는 맛깔스러운 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호남최고의 논객으로 불리는 이 고문의 칼럼 '세상만사'에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LIRIKOS

응답하라
드라마 속
'고아라 에센스'

수분.미백.탄력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야 피부는 완벽해지니까

리리코스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

3가지 마린 플랑크톤 에너지가 완성한 밸런싱 케어-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가 숨어있던
수분, 미백, 탄력의 피부 잠재력을 깨우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뷰티에어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주)아모레퍼시픽 고객 서비스 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 www.facebook.com/lirikos.kr